

2012. 2. 27.

보도자료

이 자료는 2월 28일(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KDI 홍보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한국경제의 재조명」 3차 공개토론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 일 시: 2012년 2월 27일(월) 9:30 ~ 12: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KDI
- 후 원: 조선일보

- KDI는 2월 27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을 주제로 「한국경제의 재조명」 3차 일자리 부문 공개토론회를 개최, 현재 국정과제의 핵심 이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함.
-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 과제들을 제안함.
- 토론회에는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사,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등 학계, 노사정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용의 양적, 질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방안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것임.

□ KDI는 2월 7일부터 6회에 걸쳐 「한국경제의 재조명」 공개토론회를 개최, 총론, 복지, 일자리, 가계부채, 기업, 대외/북한 등 한국 경제 중요 현안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 정책방향을 제안함.

※문의: 유경준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02-958-4045

- ❖ 첨부 1. 발표자료 요약
- ❖ 첨부 2. 「한국경제의 재조명」 3차 일자리 부문 토론회 프로그램
- ❖ 첨부 3. 「한국경제의 재조명」 공개토론회 전체 일정

❖ 첨부 1. 발표 요약

[일자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유 경 준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1990년대 초반부터 기술진보와 개방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분배 구조는 악화되고 급속한 경제서비스화로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었음.
 - 성장의 고용창출력이 하락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었으며, 특히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고용창출이 어려운 상황임.
-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일자리 창출은 단기간에 쉽게 이룰 수 없으며, 경제, 산업, 노동시장, 교육, 직업훈련, 복지제도 등 경제 및 사회의 전 부분이 골고루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일자리창출의 기본 방향은 크게 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②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의 육성과 공급, ③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의 6대 핵심과제

1)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산업군 별 자체 특성에 맞는 다원적 접근방식이 필요
- 보육 및 돌봄 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시장기능을 도입하고 생산성 증가의 동반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삶의 질 향상과 상생을 위한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소수의 사람이 장시간 근로하는 기존 구조에서 다수가 적정시간 근로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한 것임.
- 노사 간의 원만한 타협과 세제 등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보다 확대될 수 있음.
- 한편 주 40시간과 초과근로 12시간, 총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가능한 12개 특례 업종(예, 운수업 등)의 비중이 전 사업체의 55%, 총 근로자의 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 업종의 축소를 보다 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일자리 나눔과 창조를 통한 청년고용문제의 해결

- 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청년층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장년층의 재훈련 기회를 확대해 청년층과 중고령층 세대 간 고용상생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
-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 창조적 고용이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를 지향하며, 안정적 일자리에 안주하려는 청년층의 구직태도가 진취적으로 바뀌도록 할 필요

4) 고용안정과 차별금지를 통한 비정규직 대책

-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정규직의 과보호 및 과도한 연공제 임금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연공급적 임금체계의 개선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회전문 및 풍선 효과의 통제를 위해, 필요시 공기업에 적용하기로 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사유제한의 확대적용과 대표차별시정제도 및 차별의 징벌적 배상을 검토할 시기

5) 선별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

- 외국인력에 대한 기본 원칙은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으로,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지원과 대안 마련을 통한 수용억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력의 정책추진체계를 통합하고 다양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6) 상호의무제 이행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연계

-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위해 전달체계의 통합, 유사 프로그램의 시행주체 일원화,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각종 프로그램 간의 연계가 필요할 것임.
-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훈련과 고용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은 근로의 의무를 갖게 하는 상호의무제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첨부 2. 「한국경제의 재조명」 3차 일자리 부문 토론회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09:30~10:00	등록 및 네트워킹
10:00~10:10	개회사 현오석 KDI 원장
10:10~10:30	발 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유경준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10:30~12:00	사 회 현오석 KDI 원장 토 론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사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 첨부 3. 「한국경제의 재조명」 공개토론회 전체 일정

회 차	주 제	제 목	개최일자
1차	총론	“뺏겨 걸린 한국경제, 탈출구는?”	2. 7(화)
2차	복지	“일으켜 세우는 복지, 주저앉지 않는 국민”	2. 15(수)
3차	일자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 창출”	2. 27(월)
4차	가계부채	“가계 부채, 한국 경제의 뇌관인가”	3. 6(화)
5차	기업	“양극화로 치닫는 기업 경쟁력”	3. 20(화)
6차	대외/북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의 성공조건”	3. 27(화)